

### 대지의 나른한 평면성을 깨우는 학교건축

A Work of School Architecture Awakens the Monotonous Flatness of the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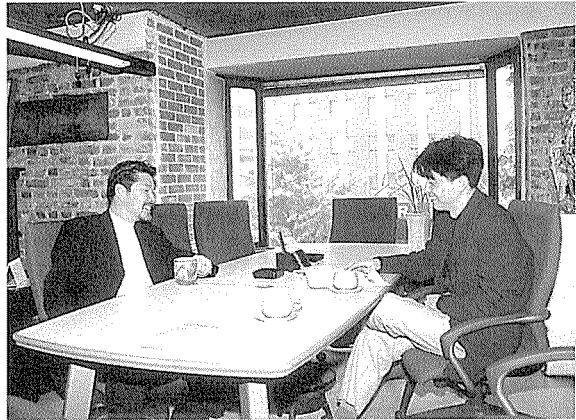
건축사 / 이상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대담자 / 전진삼(건축비평가, 건축발전연구소장)

Lee Sang-Leem & Jeon Jin-Sam

일시 / 99. 5. 26. (수) 10:00~

장소 / 공간사 회의실



대담광경(왼쪽: 이상림, 오른쪽: 전진삼)

이 글은 한국산업기술대학에 관련한 건축가와 의 대담을 정리한 것이다. 대담방법은 이메일 전송과 현장투어를 통한 형식으로 약 10여일간에 걸쳐 단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송수신의 결과와 현장경험 그리고 동행중 차안에서 계속된 대화를 토대로 재정리한 것이다. 대담에 나선 이상림씨는 현재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의 대표소장이자, 공간지의 발행인으로서 김수근, 장세양을 잇는 3대째 공간 수장(首長)의 자리에 있는 40대 중반의 젊은 건축가이다. 이미 여러 지면을 통해서 그의 존재가 알려진 상태이지만 생각외로 그의 세계관이 적절하게 소개되어있지 못하다는 개인적 판단에 따라 이 지면의 일정 부분은 그의 생각을 떠내는 데에 쓰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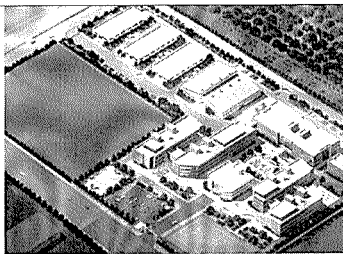
전진삼 \_\_\_\_\_ 반갑습니다. 우선 한국산업기술대학이 특별한 사고없이 건축가의 원안에 근접하여 완공된 점에 관하여 축하드립니다. 전해듣기로는 설계는 '공간'에서, 감리는 '무영건축'에서 맡았다고 하던데 그러한 과정에서 건축가의 최초의 생각이 상당 부분 달라질 우려도 무시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정보가 없는 독자들을 위하여 저간의 진행과정을 소개해 주시지요.

이상림 \_\_\_\_\_ 처음 이 프로젝트에 개입된 설계사무소는 '공간'을 포함해서 다섯군데였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제안하는 것이었지요. '공간'은 덕성여대 캠퍼스를 좋은 캠퍼스로 생각하는 발주처의 선택으로 참가할 수 있었고, 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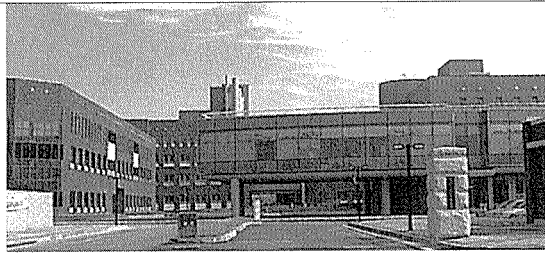
플래닝 실적과 간단한 도면을 제출한 뒤, 이사장과 학장 그리고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학교의 발전 모형과 마스터플랜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의 시간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공간'은 그 결과 여타 설계사무소와의 차별화된 설계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전진삼 \_\_\_\_\_ 그때의 기억을 하나쯤 상기해 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를테면 당시 학교 관계자와 나누어진 대화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것으로 말이지요. 아니면 그당시 생각하고 있으셨던 대학의 이상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상림 \_\_\_\_\_ 아주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이상적인 마스터플랜이 대학의 장래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된다는 믿음으로 동분서주 뛰어다니던 모(某) 젊은 교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런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냐고 설계자의 결심을 응원하신 고(故) 장세양 선생의 건축에 대한 열정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설계일을 시작하기 전에 건축가라면 누구나 통상적으로 하는 말인 기는 하지만 여타 설계사무소 혹은 주위 건축가들이 행했던 것과는 다른 무언가 새롭고, 이전에 경험되지 못했던 학교를 만들어보겠다는 자기확신에 차 있었지요. 학교의 이상적인 마스터플랜은 건축적으로는 기능의 연결이나 조형의 완성도가 높아야 하겠지만 우선 학교의 주인격인 학생들이 편안하게 수업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조감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행정동

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으며, 인격도야와 그의 소기의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교수들도 본연의 업무인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플랜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전진삼 \_\_\_\_\_ 현장에 처음 와보셨을 때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이상림 \_\_\_\_\_ 그 때만해도 이곳이 매립을 마친 지 2년여가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황량한 벌판의 이미지를 풍기고 있었고, 그 위로 소금끼가 짙은 바닷바람이 무척 세차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요. 물론 바다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은 채로 불어오는 소금바람을 통해 내가 지금 서해안의 먼어근 어느 한 자락에 서있구나 하는 확인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전진삼 \_\_\_\_\_ 시화지구는 대표적인 서해안 매립지인데 설계시 곤란을 느낀 점도 많으셨겠습니까.

이상림 \_\_\_\_\_ 매립지라는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설계 초기 단계에서 기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검토되었으며, 특히 1.5미터만 땅을 파내려가면 약 30미터 정도의 뺄이 나오므로 파일을 적용하게 되었고, 또한 좋지않은 토양과 바람의 영향으로 수목이 자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조경부분은 토질을 개선시켜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전진삼 \_\_\_\_\_ 자료를 뒤적이다보니 이 학교는 1995년 건립기본계획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후 약 4년여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비로소 그 계획서의 결과가 세상밖으로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 기간이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그 사이 시대적 변화기에 노출되었던 이 프로젝트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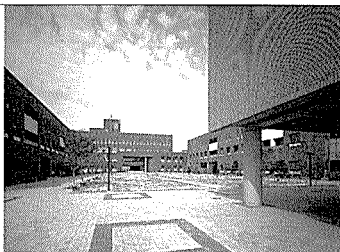
이상림 \_\_\_\_\_ 건립기본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1995년의 일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지금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지나치리만큼 모든 것이 자신에 차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교육시설이나 연구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무척 좋았

을 때입니다. 이 학교는 일반대학과 같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대학이 아니고, 산업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복선형 교육체계를 형성하는 것이지요. 90년대 중반은 산업현장에 유입되고 있는 기능 인력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이며, 현장에서는 경쟁력있는 기술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국가 차원에서 고급한 기술인력의 양성이 중차대한 과제로 떠올랐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학인데 근년에 들어서서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실업률이 급상승하며 산업현장의 수용인력이 감소되면서 자연히 산업기술대학의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전진삼 \_\_\_\_\_ 그제나 이제나 산업기술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는 악순환의 고리가 물려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제는 캠퍼스 플래닝에 주목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통상 대학의 마스터플랜을 진행할 때, 플래닝에 적용되는 일반 사례와 이 캠퍼스에 적용되어있는 플래닝 수법에 대하여 한 말씀 주시지요.

이상림 \_\_\_\_\_ 캠퍼스 플래닝은 광대한 대지면적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흔히 캠퍼스 코아라든지 캠퍼스 스트리트 또는 캠퍼스 몰 등을 구성요소로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캠퍼스는 20~30만 평을 넘는게 일반적이인데 이 산업기술대학은 그 10분의 1도 되지 않는 12,000평에 불과하므로 종합대학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규모의 협소함이 일반적인 플래닝 수법을 적용시키는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캠퍼스 스트리트나 몰보다 중정을 곳곳에 만들고자 했습니다. 넓고 큰 공간보다는 서로의 느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작으면서도 감성이 풍부한 공간을 기대하였던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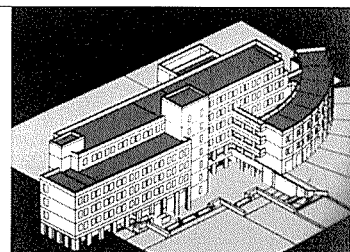
전진삼 \_\_\_\_\_ 앞서 잠시 언급하시고 지나가셨지만 덕성여대 캠퍼스가 외국 건축가와의 협력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외국 건축가와의 디자인 협력의 관계 이후 독자적으로 캠퍼스 플래닝을 하고자 할 때 얼마만큼 이전의 경험된 가치에서 독립적일 수 있는 지가 궁금해집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중정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건국대학교 종합강의동

이상림 \_\_\_\_\_ 덕성여대 쌍문동 캠퍼스는 1970년대말 서울대 관악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주도하였던 제임스 패독(James. A. Paddock)이라는 분이 김수근 선생과 같이 작업을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캠퍼스도 각동과 동 사이에 중정을 가지고 있었고 각 개실은 외기에 직접 면할 수 있는 환경적 인자를 중시하였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그리고 개실들은 대체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스케일로 처리되어 인간중심의 사고가 풍부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로티를 통한 원경의 자연이 교정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디테일한 공간의 장치가 많았다는 점도 특기할만한 사항입니다. '공간'은 가정·약학관을 필두로 미술학관, 도서관 그리고 끝으로 학생회관, 행정동 등 5개동을 디자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서관동부터 합류하여 학생회관, 행정동까지 설계에 참여하였는데 그 때의 관계가 지속되어 지금까지도 패독씨와는 교류를 할만큼 플래너와 건축가의 사이가 돈독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건축가와 국내건축가의 관계라는 입장의 차이를 떠나 선배건축가로서 그의 영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삼 \_\_\_\_\_ 이 학교는 주된 구성원인 학생의 선발과 관련하여 여타 일반 대학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만 학제에 관련해서도 연 3학기 1년 내내 학교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설계에도 반영되었을텐데요.

이상림 \_\_\_\_\_ 학교의 프로그램에서 교과 강의가 연중 발생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냉난방설비의 적응이라는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의 대학 기운에서 강의동에 냉난방 시설이 구비된 곳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이곳에는 기계 설비의 설계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좁은 캠퍼스내에 위치시킨 건물 각 동에 의해서 차단될 수 있는 시선의 간섭을 최대한 방지하여 어느 곳에서나 외부로 열려 있는 크고 작은 공간을 만나게 해줌으로써 특정 계절의 기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공간 사용자들의 몸움직임을 활발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한 점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강의동과 강의동 그리고 학생회관으로 종합되게끔 연결된 브릿지 계획이 그 사례입니다. 이는 공간활용의 성능을 일층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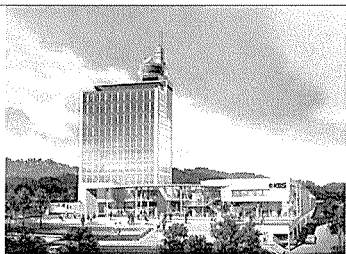
전진삼 \_\_\_\_\_ 도면위에서 체크되는 시선의 크기와 현장에서 발견되는 시선의 크기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동과 강의동 사이(A동과 B동, 그리고 C동과 D동)의 100여 미터에 달하는 긴 벽면의 끝자리는 크지 않은 평면한 대지에 공간의 인장력을 부여하는 활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중간 튀어나온 반 원의 계단실의 외벽면에 의해서 장변의 벽면이 주는 극적인 감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공대지로서의 협곡이 붙어넣는 지배적인 힘이 실패되고 있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림 \_\_\_\_\_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공의 협곡'이라는 표현은 낯설지만 듣기에는 좋군요. 평면한 대지의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일단의 조치로 중앙의 대형 오픈 스페이스와 함께 강의동 사이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긴 터널과도 같은 세장한 오픈 스페이스가 계획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 세장한 터널형 공간이 조금 방만한 스케일감으로 완결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강의동 중간의 계단실 실린다가 눈에 거슬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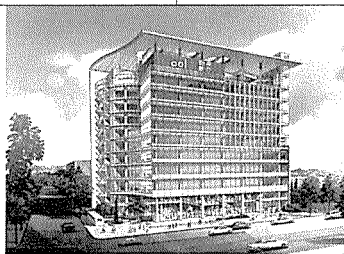
전진삼 \_\_\_\_\_ 그러나 강의동과 학생회관, 그리고 행정동으로 둘러싸인 중앙의 대형 오픈 스페이스와 함께 이 캠퍼스는 두 개의 협곡으로 지칭되는 총 3개의 중심을 지니는 공간의 조직을 통해 공간이라는 판에 박힌 대지의 나쁜함의 한계를 극복하는 건축적 장치로서의 공간나누기에서는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여도 좋을듯 싶습니다.

건축가로서 이들 공간이 어떠한 양태로 발전되기를 바라십니까?

이상림 \_\_\_\_\_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외부공간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의 주문은 가능할 겁니다. 강의동 A와 B의 성격은 육중한 기계장비의 실습이 따르는 하드웨어적 특징이 강하다면 강의동 C와 D는 정보네트워킹 등의 관련학과로 구성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건물 각 동의 생김새는 거의 같은 스타일에 유사한 평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사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보여지는 터널형 오픈 스페이스에서 규정되어질 수



KBS 대구방송총국



한국통신 목포전화국



성신여대 2부관

는 있을 겁니다. 학생들의 통합적이며, 다양한 액티비티가 중앙의 오픈 스페이스에서 벌어진다면 개별적 행동이 두 개로 나누어진 외부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전진삼 \_\_\_\_\_ 행정동이 대지 전체의 중심축에서 이탈해있는 것은 심의를 통해서 조정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대지 초입의 정 중앙에 위치하여 하부 필로티를 통해 학교의 중심 공간으로 접어드는 실질적 관문의 역할을 기대하셨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건물의 중심축을 고집하지 않고 약간 빗겨서 앉은 점이 유연하다고 봅니다만 설계 당사자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상림 \_\_\_\_\_ 심의에서 주로 거론된 주제어가 학교의 중심은 학생회관이 되어야지, 행정동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필로티를 두었다지만 행정동이 정 중앙에 위치하여서는 학생 중심적 사고를 펼 수 없다는 완곡한 지적이었지요. 그것은 시점(視點)의 차이가 될 겁니다. 행동동 하부의 필로티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원칙이 뒤들린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학교의 중심이 학생들에게 모아져야 한다는 인식에는 애초부터 서로의 차이가 있던 부분이 아니었지요. 심의위원들은 어쨌거나 한 눈에 학생회관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였고, 나는 그 상징성이 공간을 경유하게 하는 은밀한 접근의 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보았던 거지요. 한 눈에 무언가 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간점유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진삼 \_\_\_\_\_ 이 캠퍼스 내에서의 각 건물들은 어찌되었거나 하부공간을 비워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랄 수 있습니다. 캠퍼스 단지내에서 행정동과 체육관을 제외하고는 전체 건물이 동일한 조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서 관찰자는 하나의 캠퍼스가 동시에 지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의문을 갖게도 됩니다.

이상림 \_\_\_\_\_ 막상 한꺼번에 완성된 캠퍼스를 거닐고 보니 단은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서두에도 밝힌 바 있지만 워낙 작은 규모의 대지에 수용해야 할 공간 프로그램을 꺼맞추자니 피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

다. 결과적으로 캠퍼스내 건물이 각각의 시간대를 지낼 수 없을 거라면 역으로 각각의 건물이 시간을 먹는 재료의 텍스처(texture)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대개의 중심 건물이 벽돌이라는 재료의 물성을 적극적으로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전진삼 \_\_\_\_\_ 그러나 산업기술대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성격과 벽돌의 이미지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보이지 않습니까? 담고 있는 내용물은 최첨단의 기계공학적이며, 정보기술적인데 반해 그것을 감싸고 있는 표피는 재래의 벽돌이라는 점, 말입니다.

이상림 \_\_\_\_\_ 그런 지적은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애당초 건축주가 되는 학교 관계자들이 선호했던 재료가 벽돌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조적의 성질을 살려야 하는 벽돌이 스킨(skin)으로서 퇴락하고 있는 현실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텍스처로서의 벽돌이 전달하는 느낌은 그 어떠한 재료로도 찾을 수 없는 매력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맛에 벽돌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역발상적으로 오히려 기계라고 하는 딱딱하고 거친 이미지를 감쌀 수 있는 벽돌은 이 학교에서는 보다 잘 어울리는 재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캠퍼스를 구성하는 주재료로서 벽돌은 그 미적 강도가 그 어느 재료보다도 탁월하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전진삼 \_\_\_\_\_ 이 캠퍼스 주변의 공장군에서 발견되는 샌드위치 패널의 건물과 시멘트 몰탈에 수성페인트로 마감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공장지대라고 하는 덧옷으로 가려져있을 뿐 도시의 미적 감대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학교의 벽돌로 토해내는 컬러는 무척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쉽게 느껴지지 않는 재료의 안정감이 특히 이곳의 장소성을 웅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건물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강의동의 평면 구성에 오늘 대화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무릇 대학의 강의동 평면 구성은 어디나 할 것없이 병영막사의 구조와 다를 바가 없이 획일적입니다. 사인보드 하나에 의지하여 찾아들어가는 공간이 그렇고, 막상 강의동 건물내로 진입하면 미로로



성신여대 2부관



고양시 농수산물 물류센터



양천구민회관

둔갑해버리는 어둡고 컴컴한 복도라는 내부의 길로 아연 질색하게 만듭니다. 이 학교는 도면상에서 각 강의동 평면의 날개 가장자리 부분에 휴게실이 배치되어 있어서 관심있게 그 공간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강의동 평면의 형식이 가져가야 할 개선의 여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으신 점은 무엇입니까?

이상림 \_\_\_\_\_ 그나마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 안심이 되는군요. 물론 학교측에서 일정 부분의 개실에 대해서는 요구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출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각 강의동의 개실은 강의실과 실습실, 그리고 교수연구실이라는 기본적인 공간조직을 하나의 플로어에 풀어놓는 순간, 강의를 마친 학생들이 마땅히 쉴 공간이 없다는 점은 계획 당시부터 공간배분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놓여지는가와 맞물려 신경을 써야하는 대목으로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전진삼 \_\_\_\_\_ 그러나 이 학교의 강의동에서조차도 소극적인 공간운용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각 강의동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휴게실을 강의동의 중심, 그러니까 병원건축에서 병동의 중심에 간호사실이 위치하고 있듯이, 개방형의 휴게 공간을 강의동의 중심에 올려놓고 그곳을 통한 관련학과의 지식성과 학생들의 중심성이 공간 구조로부터 발견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지요.

이상림 \_\_\_\_\_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부분은 이 학교내의 브릿지 상에서 다소 해결해줄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통과로가 아니라 그곳이 머무는 장소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강의동의 중심이 학생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지가 있는 지적임에 분명합니다.

전진삼 \_\_\_\_\_ 그런데 이런 산업기술대학과 같이 특화된 장르의 실습실 계획은 어떤 경로를 통해 결정되니까?

이상림 \_\_\_\_\_ 각각의 실습실은 그곳에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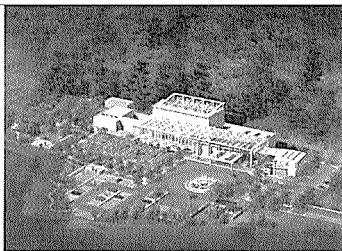
오는 기계장비의 하중, 전압, 기타 설비조건 등의 실 스펙(spec.)을 학교측으로 받아서 적절한 공간의 크기 설정과 구조의 계산을 합니다. 또한 실 스펙이 여의치 못한 학과의 실습실은 직접 현장의 방문을 통해 기자재의 스펙을 검토하는 실증 자료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어지간한 종합병원 규모의 설비계획이 따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림씨는 함께 동행한 한국산업기술대학 현장에서 여러 차례 고개를 가우뚱 거렸다. 크고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진 내외부 공간을 둘러싸고, 세세한 디테일의 공간을 점검하고 있는 눈치가 역력했다. 원설계와 극명하게 달라진 행정동 전면 파사드 계획의 수정에 질책하기도 하였다. 다소 과잉 표현된 벽돌조형의 실험의사를 현장에서 즉각 수정하고 있었다. 학생회관 전면의 대형 오픈 스페이스로부터 학생회관 지하 공간으로 직접 연결시키는 접속공간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 독백처럼 아쉬움의 말을 흘리기도 했다. 그 모든 것은 아주 오랜만에 현장에 찾아온 건축가로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힘겨투기를 해야 할 시점에 감리의 역을 '공간'이 수행하지 못 한데서 오는 회한과도 같은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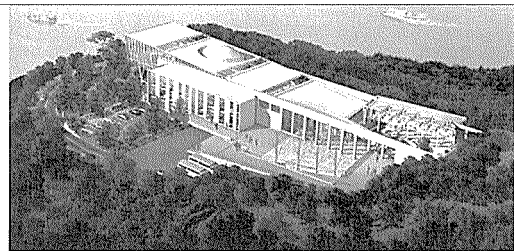
그는 1989년 1년간의 기약으로 호주로 건너가 CM 과정을 공부하고 돌아왔다. 공간이 수행해오고 있는 디자인 사무실로서의 내부 한계를 보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건축은 디자인과 그것을 충족시키는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의 통합적 의사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간의 전통적인 맥락과 연결시키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김수근, 장세양의 뒤를 잇는 건축가로서의 존재인식의 필요성 만큼 집단의 매니저(manager)로서의 자기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바뀐 세상에서는 바뀐 잣대로 바뀐 기준에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핵심언어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앞서 나가는 일보다 견고한 일을 해내고 싶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모으는 문제작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건축의 건강성을 바탕으로 시간을 담아내는 깊은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은 이 같은 건축가의 의지가 적절하게 표현된 하나의 사례로 꼽아줄 만하다.



인천시립화장장



통영수산과학관